Change Attitude with BARUN EDUCATION

미추홀외고 면접 대비 자료 · 현대시

처음 보는 시, 3분 안에 읽고 말하기

면접장에서 시 읽는 법

읽기 30초에 세 가지만 잡고, 세 문장 틀로 답하는
미추홀외고 면접 현대시 대비 연습서

읽기 3단계 · 말하기 세 문장 틀 · 흔한 실수 다섯 가지 · 연습 5편

연습 시: 진달래꽃 · 나룻배와 행인 · 청포도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새로운 길

이 자료는 바른에듀케이션이 만든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 미추홀외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내려받아 쓰셔도 됩니다. 수록한 시는 모두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입니다.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바른에듀케이션 · 미추홀외고를 1기부터 지도해 온 원장 김종두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들어가며 면접에 시가 나오는 이유

미추홀외고 면접 제시문에는 글과 도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한 편 놓이고, 그 시를 바탕으로 생각을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많은 학생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시이고, 해석할 시간은 몇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시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길이 보입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이 이 시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는지**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글 앞에서 **스스로 생각을 세우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힘**을 보려는 것입니다. 수사법 이름을 몰라도, 시인의 생애를 몰라도 됩니다. 시를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읽었는지, 그것이 질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자료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한 연습서입니다. 국어 시간의 해석법과는 다릅니다. 면접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짧고 단단한 틀** 두 가지만 익히고, 시 다섯 편으로 몸에 붙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면접장에서 3분은 이렇게 쓴다

시간	할 일	이렇게
30초	읽기	질문부터 먼저 읽고, 시를 한 번 읽으며 세 가지만 잡는다.
1분	정리	문항마다 세 문장 뼈대를 메모한다. 완성 문장이 아니라 낱말 몇 개면 된다.
1분 30초	말하기	문항 하나에 40~50초. 세 문장 틀로 말하고, 한 문장 자기 생각으로 맺는다.

이 자료의 구성

1부 · 읽기 30초, 세 가지만 잡기	처음 보는 시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세 가지와, 그것을 찾는 눈을 익힙니다.
2부 · 말하기 세 문장 틀	요약, 연결, 근거의 세 문장으로 어떤 질문에도 답하는 틀을 익힙니다.
3부 · 흔한 실수 다섯 가지	면접장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와 고치는 법을 짚습니다.
4부 · 연습 5편	시 한 편마다 예상 공통문항 두 개, 답변 뼈대, 꼬리질문으로 실전처럼 연습합니다.

> **연습하는 법.** 연습 A면(읽기 칸과 문항)은 반드시 **손으로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B면의 답변 뼈대를 보세요. 먼저 보면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메모를 마친 뒤에는 꼭 **소리 내어** 말해 보고, 가능하면 시간을 재어 보세요.

1부 읽기 30초, 세 가지만 잡기

시를 전부 이해하려 들면 30초는 금방 사라집니다. 처음 보는 시에서는 **딱 세 가지**만 잡습니다. 이 셋만 있으면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의 뼈대가 섭니다.

잡을 것	어떻게 찾나
①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잃었거나 기다리거나 바라는지 찾습니다. 제목과 첫 연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②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연의 마음과 마지막 연의 마음을 견줍니다. 슬픔에서 다짐으로, 기다림에서 준비로, 괴로움에서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③ 가장 센 구절 하나	되풀이되는 말, 마지막 줄, 앞의 흐름을 뒤집는 자리를 봅니다. 답변에서 그대로 인용할 구절이므로 하나만 고릅니다.

예시로 익히기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① 상황	하늘을 우러러보며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양심이 예민하다.
② 변화	괴로워했다(과거)에서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다짐)로. 괴로움이 다짐으로 바뀐다.
③ 구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양심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리.

놓치기 쉬운 두 곳

제목. 시의 제목은 시인이 붙인 첫 번째 힌트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을 보고 시를 읽으면 ‘같은 길이 왜 새로운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제목을 건너뛰면 그 질문을 놓칩니다.

마지막 연. 시는 대개 마지막에 마음을 정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첫 연과 마지막 연만이라도 정확히 읽으세요. 둘을 견주는 것만으로 ②가 잡힙니다.

> **모르는 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청포’나 ‘즈려밟고’의 뜻을 몰라도 세 가지는 잡힙니다. 모르는 말에 멈추지 말고, 앞뒤 흐름으로 짐작하며 끝까지 읽으세요. 면접관은 낱말 뜻을 묻지 않습니다.

2부 말하기 세 문장 틀

읽기에서 잡은 세 가지를 답으로 바꾸는 틀입니다. 어떤 문항이 나와도 이 세 문장의 순서로 말하면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생각 한 문장을 보태면 완성입니다.

①	**시 한 줄 요약** “이 시는 (어떤 상황의) 화자가 (무엇을) 노래한 시입니다.” 읽기 ①과 ②를 한 문장에 담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줄로 끝냅니다.
②	**질문과 연결** “질문이 묻는 (무엇)은 이 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다.” 문항의 핵심 낱말을 그대로 받아서 시와 잇습니다. 이 문장이 있어야 ‘동문서답’이 되지 않습니다.
③	**근거 구절과 내 생각** “특히 ‘(구절)’이라는 구절이 (이렇게) 보여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기 ③에서 고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위에 자기 판단을 얹습니다.

예시 답변 · 「서시」

문항: 화자가 말하는 ‘부끄럼’은 어떤 것이며, 이런 태도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이 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는 화자가, 괴로움 끝에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입니다.

② 질문이 묻는 ‘부끄럼’은 남에게 들키는 창피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할 때 느끼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③ 특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구절이 그 양심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 줍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오늘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이 쌓여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문장 틀을 쓸 때 지킬 것

문항의 낱말을 되받는다	문항에 ‘태도’가 나오면 답에도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되받는 순간 면접관은 ‘질문을 제대로 들었구나’라고 느낍니다.
구절은 하나만 인용한다	두세 구절을 늘어놓으면 답이 흩어집니다. 가장 센 구절 하나를 정확히 말하는 쪽이 훨씬 또렷합니다.
“~로 읽힙니다”라고 말한다	시의 해석은 하나가 아닙니다. “~입니다”보다 “~로 읽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가 겸손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투입니다.
40~50초 안에 끝낸다	세 문장에 자기 생각 한 문장이면 보통 40초 안팎입니다. 더 길어지면 ③에서 설명이 늘어진 것입니다.

3부 흔한 실수 다섯 가지

시 문항에서 점수가 깎이는 자리는 늘 비슷합니다. 해마다 학생들이 되풀이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자기가 자주 하는 것에 표시해 두세요.

이런 실수	이렇게 바꾸기
1. 수사법 이름을 댄다	"반어법이 쓰였고,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생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표현이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를 말하세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참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2. 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한다	1연은 무엇이고 2연은 무엇이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끝납니다. 면접관은 시를 이미 읽었습니다. **질문이 묻는 자리**로 바로 가세요.
3. 자기 경험으로 바로 건너뛴다	시를 한 줄도 말하지 않고 "저도 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는데…"로 시작하면 시 문항이 아니라 자기소개가 됩니다. 경험은 **세 문장 뒤에**, 그것도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4. 한 가지 해석만 정답이라고 우긴다	"이 시의 손님은 광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꼬리질문에 바로 흔들립니다. "시가 쓰인 때를 생각하면 광복으로 읽히고, 시 자체만 보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도 읽힙니다"처럼 **두 갈래를 열어 두고** 자기 생각을 고르세요.
5. 시가 어려우면 얼어붙는다	모르는 낱말이 보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잡자고 마음을 정해 두면, 모르는 말이 있어도 ① 상황과 ② 변화는 거의 늘 잡힙니다. **"이 시는 ~한 화자가"**로 입을 떼는 것만으로 답이 시작됩니다.

꼬리질문이 올 때

미추홀외고 면접에서는 첫 답변보다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면접관은 한 번 더 묻고, 이때 당황해서 처음 답을 뒤집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③의 구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읽은 까닭은 '(구절)' 때문입니다." 근거가 시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볼 수는 없나요?"	인정하고 고릅니다. "네, ~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 때문에 처음 생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인정이 곧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지 않나요?"	면접관이 반대 입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반대 입장의 좋은 점을 한마디 짚은 뒤, 그럼에도 자기 생각이 서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기억할 것. 꼬리질문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더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숨을 고르고 ③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4부 연습 5편

이제 시 다섯 편으로 실제처럼 연습합니다. 한 편마다 두 쪽입니다. 앞쪽(A면)은 손으로 채우는 연습, 뒤쪽(B면)은 답변 벼대와 꼬리질문입니다.

연습 순서

1단계 · 3분	시간을 재고 A면을 채웁니다. 질문을 먼저 읽고, 시를 읽으며 세 가지를 잡고, 문항마다 세 문장 벼대를 낱말로 메모합니다.
2단계 · 2분	메모를 보며 두 문항을 소리 내어 말합니다. 녹음해 두면 더 좋습니다. 한 문항에 40~5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3단계 · 5분	B면을 펼쳐 답변 벼대와 견줍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빠졌는지 보되, 벼대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기 말이 더 자연스러우면 그쪽이 낫습니다.
4단계 · 1분	꼬리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해 봅니다. 이 한 문장이 실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록한 시

연습	시	시인	이 시로 연습하는 것
1	진달래꽃	김소월	겉과 속이 다른 화자의 태도를 읽고, 그 태도를 평가하기
2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기울어진 관계를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역할의 가치 말하기
3	청포도	이육사	상징을 두 갈래로 열어 읽고, 준비하는 태도를 자기 삶에 잇기
4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비유로만 말하는 시를 설명하고, 그 표현 방식을 평가하기
5	새로운 길	윤동주	되풀이 속의 새로움을 읽고, 외고 3년의 다짐으로 잇기

왜 이 시들인가. 다섯 편 모두 길지 않고, 낱말이 어렵지 않으며, 사람의 태도를 묻기에 좋은 시입니다. 미추홀외고 공통문항은 시를 '분석'하라고 하지 않고 시를 바탕으로 **태도와 생각**을 묻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항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읽기 30초 · 세 가지만 잡기

①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②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 끝)

③ 가장 센 구절 하나

예상 공통문항 · 각 1분 안에 말하기

문항 1 화자가 떠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시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하고, 그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문항 2 화자는 슬픔을 누르고 상대를 먼저 배려합니다. 친구 관계나 SNS처럼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 쉬운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근거를 들어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연습 1 · 답변 벼대

진달래꽃 — 김소월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세 문장 틀**을 채운 예시입니다. 그대로 외우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어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번호는 ① 한 줄 요약 ② 질문과 연결 ③ 근거 구절과 내 생각입니다.

문항 1 화자가 떠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시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하고, 그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1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붙잡지 않고 오히려 꽃을 뿌리며 보내 주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2 질문이 묻는 화자의 태도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굳이 '죽어도'라고 말하는 데서 참고 있는 슬픔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3 저는 이 태도를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끝까지 마음을 숨기는 것이 늘 옳은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항 2 화자는 슬픔을 누르고 상대를 먼저 배려합니다. 친구 관계나 SNS처럼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 쉬운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근거를 들어 말해 보세요.

1 이 시에서 화자는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상대가 편히 갈 수 있도록 길에 꽃까지 뿌립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2 오늘날에는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으로 여겨지지만, 저는 이 시의 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에서는 한번 드러낸 감정이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되어 관계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낼지 한 번 더 고르는 태도가 이 시가 말하는 '고이 보내는' 마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히면 더 좋아요

'역겨워'라는 말이 요즘 말과 뜻이 다르다는 점(싫증이 나서, 마음에 차지 않아서)을 짚어 주면 시를 꼼꼼히 읽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꼬리질문 · 면접관이 이어서 물을 수 있는 것

화자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읽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답해 보기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읽기 30초 · 세 가지만 잡기

①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②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 끝)

③ 가장 센 구절 하나

예상 공통문항 · 각 1분 안에 말하기

문항 1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돌아보지 않는 행인을 끝까지 기다리는 나룻배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문항 2 학교나 사회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나룻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연습 2 · 답변 뼈대

나룻배와 행인 — 한용운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세 문장 틀**을 채운 예시입니다. 그대로 외우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어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번호는 ① 한 줄 요약 ② 질문과 연결 ③ 근거 구절과 내 생각입니다.

문항 1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돌아보지 않는 행인을 끝까지 기다리는 나룻배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 보세요.

1 이 시는 자신을 짓밟고 돌아보지 않는 행인을, 그래도 안고 물을 건네주며 기다리는 나룻배의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2 질문이 묻는 두 존재의 관계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와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가 나란히 놓인 데서 드러납니다. 한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은 주기만 하는,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3 저는 나룻배의 태도를 단순한 희생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다림이 가능한 것이고, 이 믿음이 나룻배를 스스로 선택한 역할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날마다 낡아갑니다’라는 구절은 이 헌신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숨기지 않습니다.

문항 2 학교나 사회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나룻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말해 보세요.

1 이 시의 나룻배는 행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물을 건네주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역할의 가치를 남의 인정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2 학급이나 사회가 굴러가는 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급식 당번이나 청소처럼 누군가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이 없으면 공동체는 겉으로만 멀쩡하고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3 제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나룻배처럼 묵묵히 하되 혼자 ‘낡아가지’ 않도록 함께할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묵묵함과 자기를 돌보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넓히면 더 좋아요

행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을 비판만 하기보다, 그래도 ‘물만 건너면’ 자기 길을 가는 것이 행인의 몫이라고 짚어 주면 균형 잡힌 답이 됩니다.

꼬리질문 · 면접관이 이어서 물을 수 있는 것

‘나룻배’의 기다림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만약 행인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의미가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답해 보기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읽기 30초 · 세 가지만 잡기

①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②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 끝)

③ 가장 센 구절 하나

예상 공통문항 · 각 1분 안에 말하기

문항 1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 시 안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문항 2 화자는 손님이 오기 전부터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마련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말하고, 자신이 외고 입학 후 3년을 위해 지금 무엇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연습 3 · 답변 뼈대

청포도 — 이육사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세 문장 틀**을 채운 예시입니다. 그대로 외우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어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번호는 ① 한 줄 요약 ② 질문과 연결 ③ 근거 구절과 내 생각입니다.

문항 1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 시 안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세요.

1 이 시는 청포도가 익어 가는 칠월에, 푸른 옷을 입고 올 손님을 정성껏 맞이할 준비를 하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2 질문이 묻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는 구절에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고달프다는 말에서 먼 길을 고생하며 온 존재임을, 청포라는 말에서 푸른색이 상징하는 희망이나 새 시대와 이어진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이 시가 쓰인 때가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떠올리면 손님은 되찾을 조국이나 광복일 수 있고, 시 자체만 보면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이라는 구절처럼 기쁘게 맞이하고 싶은 존재라는 점은 같습니다.

문항 2 화자는 손님이 오기 전부터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마련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말하고, 자신이 외고 입학 후 3년을 위해 지금 무엇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1 이 시의 화자는 손님이 오기도 전에 식탁에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둡니다. 기다림을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준비가 없으면 기다리던 것이 와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고 입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은 손님이 오는 날이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3 저는 지금 읽기 습관을 '모시 수건'처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일인데, 외고에서 만날 많은 글을 맞이할 준비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히면 더 좋아요

'주저리주저리', '알알이', '함뿍' 같은 말의 소리와 느낌을 한 번 언급하면, 시를 감각으로도 읽었다는 점이 전해집니다. 자신의 준비는 꾸며내지 말고 작더라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꼬리질문 · 면접관이 이어서 물을 수 있는 것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왜 시인은 손님을 멋진 모습이 아니라 고달픈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한 문장으로 답해 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읽기 30초 · 세 가지만 잡기

①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②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 끝)

③ 가장 센 구절 하나

예상 공통문항 · 각 1분 안에 말하기

문항 1 화자가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같이'라는 비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문항 2 이 시는 바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유로만 말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일지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연습 4 · 답변 뼈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김영랑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세 문장 틀**을 채운 예시입니다. 그대로 외우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어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번호는 ① 한 줄 요약 ② 질문과 연결 ③ 근거 구절과 내 생각입니다.

문항 1 화자가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같이'라는 비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세요.

1 이 시는 봄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햇발이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2 질문이 묻는 마음의 상태는 네 가지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과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은 작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것들이고,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과 '살포시 젖는 물결'은 드러나지 않게 번지는 설렘입니다.

3 네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크지 않고, 소리 내지 않으며, 스스로 빛난다는 점입니다. 화자가 바라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것입니다.

문항 2 이 시는 바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유로만 말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일지 말해 보세요.

1 이 시는 '맑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햇발·샘물·물결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빗대어 말합니다.

2 이런 방식의 장점은 읽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이라는 구절은 뜻을 풀기 전에 이미 하늘의 색과 질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비유는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채워지기 때문에 시가 더 넓어집니다.

3 한계도 있습니다. 비유만으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의 역할이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한계라기보다 시가 맡은 몫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넓히면 더 좋아요

두 연이 모두 '~고 싶다'로 끝난다는 점을 짚고,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르는 다른 시와 견주어 말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 보입니다.

꼬리질문 · 면접관이 이어서 물을 수 있는 것

이 시의 화자처럼 조용하고 맑은 마음만 바라는 것이 때로는 현실을 피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문장으로 답해 보기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읽기 30초 · 세 가지만 잡기

①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②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처음 → 끝)

③ 가장 센 구절 하나

예상 공통문항 · 각 1분 안에 말하기

문항 1 화자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길이 왜 새로운 길일 수 있는지 시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문항 2 외고에 입학하면 3년 동안 비슷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 시의 화자처럼 반복되는 하루를 ‘새로운 길’로 만들기 위해 자신은 어떻게 하겠는지 말해 보세요.

세 문장 벼대 메모 (요약 · 연결 · 근거)

연습 5 · 답변 뼈대

새로운 길 — 윤동주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세 문장 틀**을 채운 예시입니다. 그대로 외우지 말고, 자기 말로 바꾸어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번호는 ① 한 줄 요약 ② 질문과 연결 ③ 근거 구절과 내 생각입니다.

문항 1 **화자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길이 왜 새로운 길일 수 있는지 시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세요.**

1 이 시는 날마다 다니는 똑같은 길을,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2 질문이 묻는 '같은 길이 새로운 이유'는 3연에서 드러납니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처럼 길 위의 것들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길은 같아도 그 길에서 만나는 것과 그 길을 걷는 나는 어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는 같지만, 3연과 4연을 지나온 뒤에 읽는 마지막 연은 처음과 다르게 읽힙니다. 시의 구조 자체가 '같은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보여 줍니다.

문항 2 **외고에 입학하면 3년 동안 비슷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 시의 화자처럼 반복되는 하루를 '새로운 길'로 만들기 위해 자신은 어떻게 하겠는지 말해 보세요.**

1 이 시의 화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길을 보는 눈이 매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외고의 하루는 수업과 자습과 기숙사로 비슷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 반복을 지루함이 아니라 쌓임으로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를 마칠 때 그날 처음 알게 된 것 한 가지를 적어 두려고 합니다. 민들레나 까치처럼 작지만 어제와 다른 것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3 그렇게 하면 같은 교실, 같은 책상이라도 저에게는 매일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히면 더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의 말줄임표가 멈춤이 아니라 이어짐을 뜻한다고 읽어 주면 좋습니다. 자신의 다짐은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믿음을 줍니다.

꼬리질문 · 면접관이 이어서 물을 수 있는 것

날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정말로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한 날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한 문장으로 답해 보기

마무리

면접장 시 읽기 점검표

면접 전날,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열 가지가 몸에 붙어 있으면 처음 보는 시도 두렵지 않습니다.

- [ ] 시보다 **질문을 먼저** 읽었다.
- [ ] 제목을 읽고, 제목이 던지는 질문을 떠올렸다.
- [ ] ① 화자의 상황을 한 줄로 잡았다.
- [ ] ② 첫 연과 마지막 연을 견주어 마음의 변화를 잡았다.
- [ ] ③ 인용할 구절을 **하나만** 골랐다.
- [ ] “이 시는 ~한 화자가 ~을 노래한 시입니다”로 입을 뗐다.
- [ ] 문항의 핵심 낱말을 답에서 되받았다.
- [ ] 해석은 “~로 읽힙니다”로 말하고, 다른 갈래도 열어 두었다.
- [ ] 자기 생각은 세 문장 뒤에 한 문장으로 보탰다.
- [ ] 꼬리질문이 와도 처음 답을 뒤집지 않고 ③으로 돌아갔다.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시 한 편을 3분 안에 읽고 말하는 힘은 면접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세우는 태도는 외고에서, 그리고 그 뒤의 공부에서 내내 여러분을 지켜 줄 것입니다. 이 자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에듀케이션 · 미추홀외고를 1기부터 지도해 온 원장 김종두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